

## 소득 및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성공 기회

- 10.17~18일중 “ 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” 라는 주제로 FRB Boston에서 실시한 58th Economic Conference에서 엘런 연준의장의 Keynote speech(“Perspective on Inequality and Opportunity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”)중 주요 내용을 정리

□ 엘런 의장은 미국 경제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네가지 경제적 기회 원천\*의 최근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극적인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불평등 갭의 증가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

\* 자녀를 위한 경제적 자원, 보다 높은 교육 수준, 사업 소유권, 상속

- 시장에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넘어서, 경제 불평등과 관련된 논쟁 및 연구의 원천이 되고자 한다고 논평(NY times, 10.18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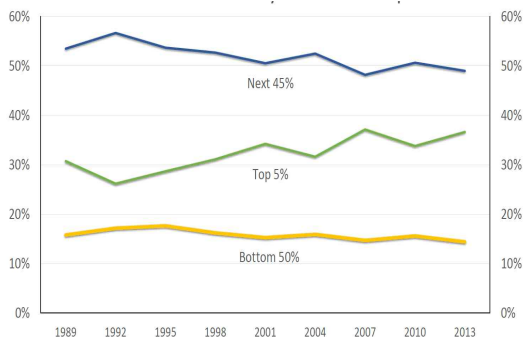
### (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최근 현황\* 및 경제적 의미)

\* 2013년말 기준 6,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Survey of Consumer Finances결과를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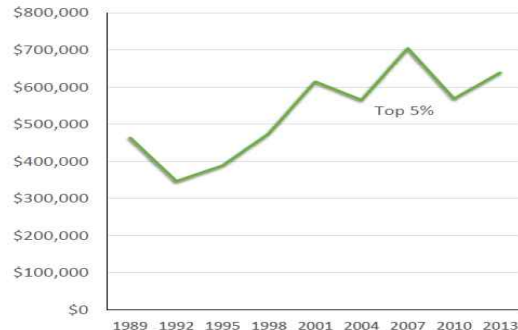
□ 지난 수십년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가 지난 백년간의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\*

\* “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”(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, 2011)

#### 소득 그룹별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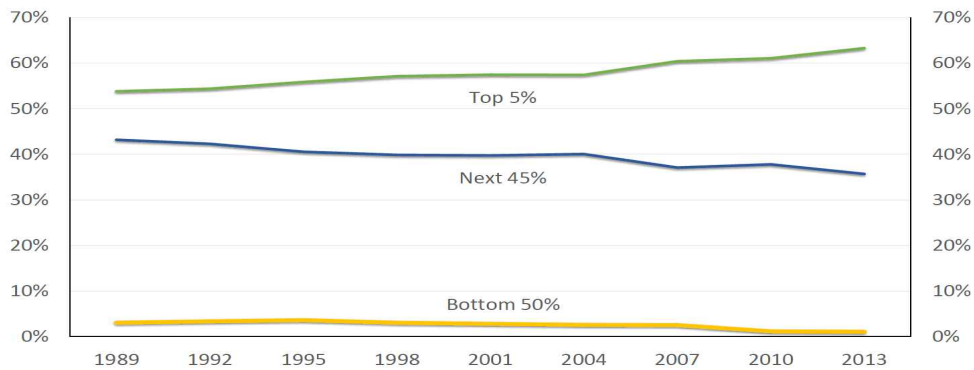
#### 최상위 계층의 소득(중간값) 추이



자료: FRB, Survey of Consumer Finance

-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상승률과 고용시장 회복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가계 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회복 국면에서 부의 불평등 갭도 다시 확대
  - 미국 가구 전체 순자산중 최상위 5%가구가 차지하는 순자산 비중은 1989년 54% 수준에서 2013년 63%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중 하위 50% 가구의 순자산은 3%에서 1%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

### 순자산 그룹별 비중 추이



자료: FRB, Survey of Consumer Finance

- 최상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989년 \$3,600,000 정도에서 2013년 \$6,800,000 수준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한 데 반해, 차상위 45%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동일기간 \$323,000에서 \$516,000로 30% 정도 증가

### 순자산 그룹별 순자산 추이(최상위 5% 및 차상위 45%)



자료: FRB, Survey of Consumer Finance

- 균등한 기회에도 노력, 기술 및 운 등 최종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는 근로욕구, 교육, 저축, 투자 및 위험 감수 등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공헌한 면도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\*할 만한 것으로 생각

\* “Great Gatsby Curve”에서 암시되듯이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정도에 따라 경제적 성과의 불평등이 야기되는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대간 경제적 유연성 감소가 소득 불평등을 확대 시키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균등한 기회의 제공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임(Alan B. Krueger, 2012)

## (경제적 기회 제공의 네가지 요소)

□ 경제적 기회는 부의 세대간 이동 유연성 및 추세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모두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려우나 네가지 요소에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함

○ 첫 두가지는 ① 자녀들의 성격 형성 등에 중요한 시기의 자녀를 위한 활용가능한 경제적 자원, ② 자녀 또는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수준으로 기회의 ‘초석’이라 불릴만큼 중요하며 교육과 연관

○ 나머지 두가지는 ③ 사업소유권 및 ④ 상속으로 보다 적은 가구에 영향을 미치나 여전히 경제적 기회제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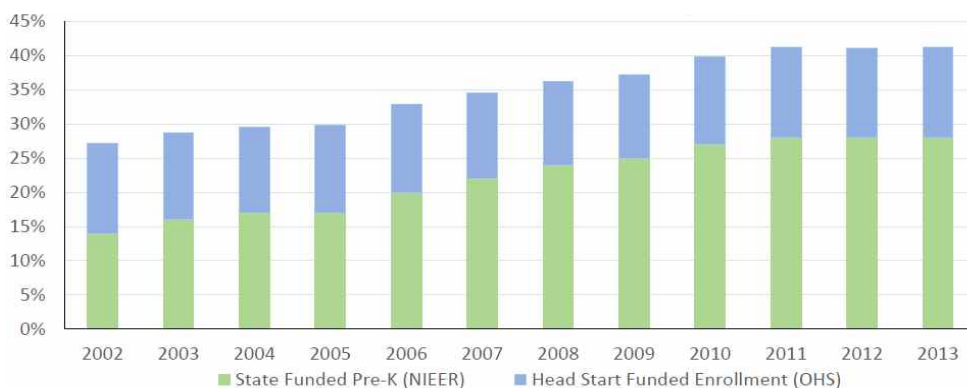
① (자녀를 위한 경제적 자원) 가족 자원(family resources)은 미래 소득과 여타 경제적 성과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함

— 부유한 집안은 자녀들이 좋은 학군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거주, 올바른 영양 섭취, 건강 관리, 조기 교육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여행 등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을 소유

— 공공부문 보조를 통한 교육지원 등은 이러한 가족 재원의 불평등을 완화\*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위기 이후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부문 보조를 통한 Pre-K 등록 비율이 2010년 이후 40% 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체된 상태

\* 양질의 pre-Kindergarten 교육을 받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(James J. Heckman, Rodrigo Pinto, 2010)

### 공공부문 보조를 통한 4세아이의 Pre-K 등록 비율



자료: U.S. Census Bureau

— 부모의 주택소유율\*, 교육 수준 및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도 자녀들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

\* 부모의 주택소유는 자녀의 경제적 성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97%의 최상위 계층은 주택을 소유(Journal of Housing Economics, 1999, Ayana and Michelle, 200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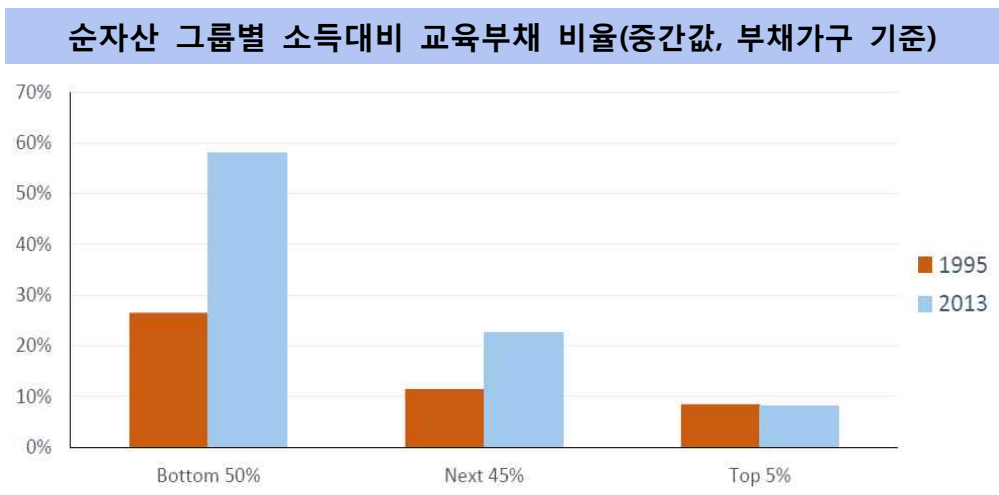
② (보다 높은 교육 수준) 많은 개인 및 가정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위한 주요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인한 평생소득 프리미엄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커져왔음

— 한 연구결과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연간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생 연간소득에 비해 79%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RB NY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육 비용을 고려하고 나서도 대학교육은 15% 정도의 추가적인 평생 소득을 제공\*하는 것으로 나타남

\* Do the benefits of college still outweigh the costs?(FRB NY, 2014)

— 다만 순자산이 낮은 가구의 상대적 교육부채 부담이 지난 수십년간 높아졌는데 이러한 격차는 지난 20년간 크게 확대

■ 1995년부터 2013년중 하위 50%가구의 교육부채는 연간 평균소득의 26%에서 58%로 확대되었으나 상위 5% 가구는 10%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폭 감소



자료: FRB, Survey of Consumer Finance

③ (사업 소유)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사업체 설립 등 창업을 통한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갖는 것은 American Dream의 주요한 부분이며 가계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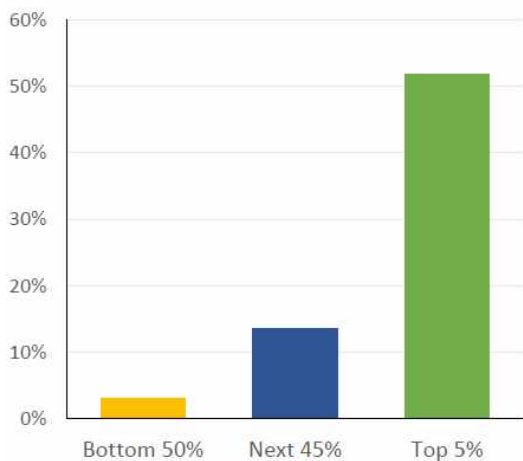
— 최상위 5% 가구는 과반수가 개인사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자산가치는 \$4,000,000 수준인 데 반해 차상위 45% 가구는 14% 및 \$200,000, 하위 50% 가구는 3% 및 \$20,000 수준

■ 차상위 45% 가구의 전체 순자산에서 사업체의 평균자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/3이상, 하위 50% 가구에서는 60%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— 그러나 최근 들어 사업운영 여건 악화 등으로 신규사업 착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상위 45% 가구의 사업지분소유 비율이 25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최고 5% 이하 가구의 경제적 성공 기회를 위협\*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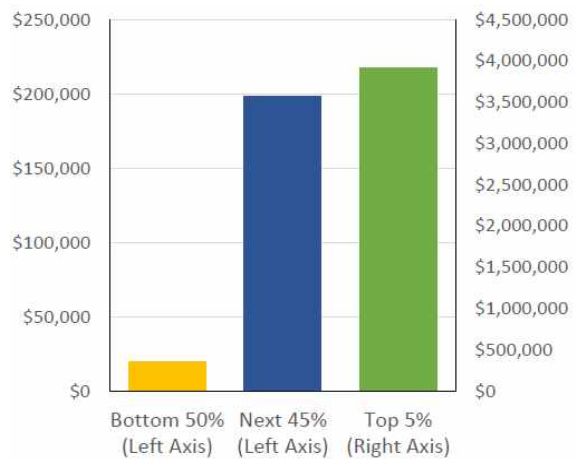
\*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(“Earnings Growth among Young Less-Educated Business Owners”, Industrial Relations, 2004, “Entrepreneurship, Saving, and Social Mobility, Review of Economic Dynamics, 2000)

순자산 그룹별 사업지분소유 비중



자료: FRB, Survey of Consumer Fina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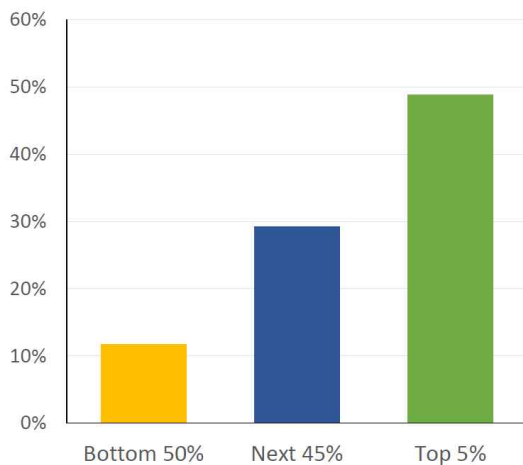
사업소유 가치(중간값, 사업소유자 기준)



④ (상속) 최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상속은 세대간 경제적 이동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차상위 가구 및 하위 50% 가구에서도 이러한 상속은 일반적이며 경제적기회를 갖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

- 최상위 5% 가구는 절반 정도, 차상위 45% 가구는 30%, 하위 50% 가구는 12%가 향후 유산을 상속 받을 것으로 예상
- 상속은 최상위 5%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정도가 순자산의 최상위 5% 가구에 대한 집중 정도 보다는 덜한 것으로 나타남
- 상속금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최상위 5% 가구는 \$1,100,000, 차상위 45% 가구는 \$183,000, 하위 50% 가구는 \$68,000임

순자산 그룹별 상속 예상 비중



자료: FRB, Survey of Consumer Finance

상속 금액(중간값, 상속가구 기준)

